



어느덧 9 월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. 2024 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9 월도 다 가고 3 개월 밖에 안 남았네요. 코로나로 힘들어 하던 시기도 이제는 먼 옛날같이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코로나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저희 아이들이 하나 둘 대학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원에 남아 있는 아이들이 얼마 없어요. 그러나 서로가 열심히 잘들 감당하고 있어서 감사하지요.

식품공장에서는 맛있는 빵과 제과, 피자, 만두, 케익 등 맛있게 만들어 계속 공급을 잘하고 있습니다.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일주일에 한번은 노인들을 잘 봉양하고 이웃들에게 맛있는 빵을 나누어 드리고 있지요. 기특합니다. 이곳에 왔던 남자아이들은 그곳으로 들어가고 여자아이 들이 나왔지요 이번에는 F4 비자를 받아 가지고 나와서 수속을 잘 하여 외국인 거소증까지 다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. 한국에 체류하는 훈련들을 잘 하고 있고



이곳에서도 계속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. 직장 체험을 하게 하고 있고 훈련들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9월에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

뒷쪽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힘든 시간들 속에서 지내고 있지요. 그런데로 잘 들 지내고 있고 힘들어도 잘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하지요. 저희는 이곳에서 계속하여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사람들을 더 알아보고 있고 그동안 했던 동영상 편집도 계속하여 하고 있습니다. 사장님 건강은 아직까지도 기침이 나와서 힘이 많이 들고 있지만 그런데로 산에도 다니고 건강을 잘 챙기며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.

저는 이제 10월 초에 다리에 들어있는 철판 제거 수술을 하여야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. 그동안 힘들게 걸어 다니던 것이 이제 좀 쉽게 잘 걸어 다니는데 또 수술을 하면 잠시 또 힘들어질 것입니다. 계속하여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외손자 태디가 어느덧 만 5살이 되어 어엿이 잘 성장하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

저희의 사역은 계속하여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나누며 함께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. 원장님께서 믿음의 숙소 건축을 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 계속하여 열심히 잘 감당하며 함께 해 주시는 분들과 계속 열심히 잘 나아갈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

멀리서 뽀릴리 뽀릴리 소리를 울립니다.

9.2024 이진세/옥소리 드림